

불황에도 훨훨... ESG시장, 채권발행 '사상최대'

(환경·사회·지배구조)

NH투자증권, 한수원 수요예측 1500억 모집에 5600억 몰려

LG화학 등 9곳 ESG 채권발행액 이미 연간기준 발행규모 넘어서

자금조달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ESG 시장만은 예외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투자하는 ESG 채권 발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ESG 펀드는 꾸준히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NH투자증권은 한국 수력원자력이 발행한 원화 소셜 본드(Social Bond)의 수요예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5년과 20년, 30년을 합쳐 총 1500억원을 모집하는 이번 수요예측에 5600억원의 자금이 몰린 것. 이에 따라 한수원은 3000억원어치의 채권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소셜 본드를 통해 모집한 자금을 경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6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찍

〈SRI 펀드 상위 수익률〉

(단위: 억원, %)

펀드명	설정일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이후
KB주주가치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C-F	2018-03-12	0.50	6.00	11.03	13.37
KB주주가치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A-E	2018-03-12	0.47	5.92	10.85	13.22
KB주주가치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C-퇴직e	2018-05-14	0.47	5.90	10.83	13.20
KB주주가치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C-E	2018-03-12	0.46	5.88	10.77	13.16
KB주주가치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A	2018-03-12	0.44	5.83	10.66	13.07
KB주주가치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C-P	2018-03-15	0.43	5.79	10.59	13.01
KB주주가치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C	2018-03-12	0.39	5.67	10.34	12.80
한국밸류10년투자주주행복증권투자신탁(주식)(A)	2018-07-04	0.51	-0.28	7.76	7.34
한국밸류10년투자주주행복증권투자신탁(주식)C	2018-07-04	0.48	-0.36	7.60	7.21
ABL액티브SRI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A	2008-10-29	-3.40	-3.12	3.68	6.34
ABL액티브SRI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C	2008-10-29	-3.44	-3.24	3.43	6.13
마이디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S	2014-04-23	-4.62	-5.25	1.26	3.50
마이디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Ae	2014-06-11	-4.63	-5.31	1.17	3.42

*기준일: 2019/05/29 *설정액 10억원이상 펀드 대상(운용/모펀드 제외) /자료=에프엔가이드(FnSpectrum)

며 ESG 채권 발행에 앞장섰다.

◆ ESG 채권 '홍행 바람'

소셜본드란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린본드(Green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등과 함께 ESG 채권으로 불린다. ESG 채권은 조달 자금을 친

환경·친사회·지배구조 개선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제한하는 특수 목적 채권이다.

ESG 채권은 지난 2007년 유럽투자은행(EIB)에서 시작됐다.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SG 채권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만 미래에셋대우, LG화학, 우리카드 등 9곳이 ESG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미 연간 기준 발행규모는 사상 최고치다.

증권사, 금융권이 직접발행하는 채권도 늘었다.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로 최초로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지속가능채권 수요예측에서 당초 모집규모(6억달러·약 6900억원)의 다섯배에 달하는 40억달러(약 4조6400억원)의 매수주문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도 가세했다. 올 1월에는 KEB하나은행이 6억달러(약 720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고, 우리카드는 지난달 소셜본드를 발행했다.

◆ ESG 펀드, 자금 유입 활발

펀드 시장에서도 ESG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4개 자산운용사가 ESG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를 내놨고, 건조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투자자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29일 기준) 27개 SRI펀드에 연초 이후 332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 펀드 전체에서 8215억원의 자금이 이탈한 것과 비교하면 SRI 펀드가 선방하고 있는 셈이다.

수익률도 견조하다. 연초 이후 국내주식형 펀드가 0.27% 상승하는 동안 SRI 펀드는 0.91% 올랐다. 급격히 장이 하락한 최근 한달을 기준으로 봐도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6.39%)보다 SRI 펀드 수익률(-4.91%)이 하락폭이 적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앞다투어 SRI 펀드를 출시했다. 지난 3월 KTB자산운용사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KTB지배구조 1등주 펀드'를 내놨고, 며칠 뒤 KB자산운용은 건조한 수익률을 기반으로 'KB주주가치포커스'의 C-W클래스를 신설했다. 또 이달에는 코레이트자산운용이 '코레이트주주성장타겟' 펀드를 내놓으며 SRI 펀드 열풍에 가세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유효한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국제 돼지고기값 상승에 '실적개선' 양돈업체 주목

株라쿨라의 주목

우리손에프이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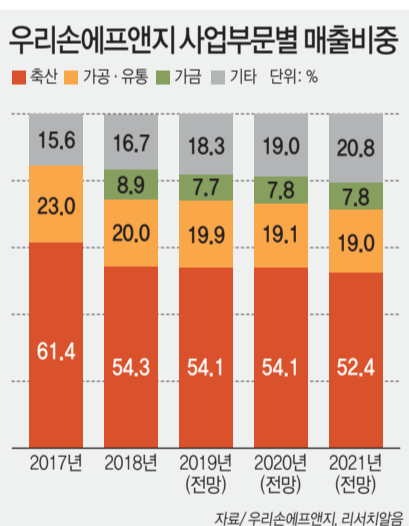
'아프리카돼지열병' 국제시장 요동 세계 공급물량 위축에 '가격 상승'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제 가격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돼지가격은 한동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2일 올 하반기 돼지고기 대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양돈업체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국내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지난해 2분기보다 낮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지난 4~5월 두 달간 평균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kg당 4535원으로, 지난해



2분기 평균가격보다 6.4% 하락했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지난해 2분기는 국내에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살처분된 돼지가 많아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했다"며 "현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 연구원은 국내 돈육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했다. 바로, 돼지고기 수입량 추이다.

지난해 2분기 구제역으로 상승했던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하반기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부터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46.4만톤으로 2017년보다 25.7% 급증했으며, 수입산 점유율 역시 같은 기간 29.1%에서 33.3%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근 들어 유럽연합(EU), 미국의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돼지고기 자체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어든 4850만톤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입물량이 전년 대비 41%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어 국제 시세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국내 돼지고기 수입물량 감소로 이어져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양돈업체들의 실적 개선까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는 '우리손에프이엔지'를 꼽았다.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을 따져볼 때 순수 양돈회사에 가까워 돼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개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에서다.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다.

지난해 우리손에프이엔지의 영업이익률은 8.6%로 서진(3.8%), 팜스토리(2.1%) 대비 우위를 차지했고, 순이익 역시 월등한 모습을 보였다.

최 연구원은 "상반기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전 세계 돼지 공급물량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하반기 판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우리손에프이엔지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과 함께 적정주가 365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보다 40.7% 가량 상승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업지 기자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점검결과 현황〉 (단위: 사, %)

구분	2017년		2018년	
	상장	비상장	상장	비상장
미흡 회사 (비율)	585 (29.2)	224 (58.8)	519 (24.8)	165 (42.1)
점검 대상	2,020	381	2,089	392

/금융감독원

상장사 등 4곳 중 1곳 재무사항 공시 '미흡'

지난해 상장사 등의 사업보고서를 중점점검한 결과 4곳 중 한 곳은 재무사항 공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2481개사에 대해 2018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에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684개사로 집계됐다.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전년 809개사, 33.7%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요약 별도재무정보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종속·관계회사 관련) 평가방법이나 주당순이익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다.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이나 재고자산 보유현황을 누락하는가 하면 수주산업 중요계약 건별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新)기준서(1109호·1115호 등)와 관련해서 주석이 재무영향·변동내용 등을 충실히 서술해야 하지만 미흡하게 기재했으며, 회계감사 보수 및 소요시간을 누락한 곳도 있었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더 많았다. 사업보고서 제출 1899개사(전체 2665개사 중 점검 필요성이 적은 일부 비상장사 등 제외)에 대해 비재무사항 7개 테마를 점검한 결과, 1건 이상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1441개사로 75.9%에 달했다.

/안삼미 기자 smahn1@

전국 14곳서 7488가구 1순위 청약접수

분양캘린더

6월 첫째 주에는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등 지방에서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곳에서 총 7488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위 청약접수가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는 14곳, 계약은 12곳에서 진행된다. 건본주택은 전국 2곳에서

개관될 예정이다. 우선 인천에서는 '부개역 코오롱하늘채',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구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부산의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오피스텔이 청약받을 예정이며, 대구에서는 '힐스테이트감삼', '힐스테이트 데시앙도남'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건본주택은 서울 '신내역 힐데스하임 참좋은', 부산 'e편한세상 시민공원' 두 곳이 개관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美·中 무역분쟁에 주식형펀드 수익 하락

주간펀드동향

국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이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5월27일~31일)간 미·중 무역분쟁 격화 우려에 전 주 대비 1.01% 하락한 2038.80포인트

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상무부가 교역국들의 환율 개입에 대한 상계과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 관련 이슈가 이어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해당 기간 개인은 297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인 각각 2478억원, 566억원 규모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손업지 기자